



“비지정 문화유산 10건 중 3건 지정 가치”

도, 제주시권 전수조사 용역
935개소 조사 A-E 등급화
지정 가치 대상은 276개소
비지정 분류 지표 용역 연계
내년엔 서귀포시 조사 추진

1888년(고종 25) 건립된 제주시 한경면의 ‘고산리 전조방장조광운비’. “담 없는 평평한 터에 사람에게 담 쌓기를 권하니 공을 이룬 게 비할 데 없어 비석을 세워 드러내네”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제주 발담 축조, 돌 문화 관련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조선 시대 금석 유물로 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울타리 내부에 농사용 물품이 쌓여 있는 등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비석은 제주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제주도의 학술 용역 결과물인 ‘비지정 문화유산 전수조사 보고서-제주시권’에 실린 내용이다. 이 용역은 훼손·멸실 가능성이 높은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29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3~12월 제주시 전역의 비지정 유형문화유산(매장 유산, 천연동굴 제외)을 대상으로 했다. 시간적 범위는 선사 시대부터 1975년(일반 가옥 포함) 이전으로 미래유산 자원까지 확대했다. 이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적 분포지도’(2019), ‘제4차년도 역사문화자원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2023)에 수록된 제주시권 목록을 기초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는 문화유산을 일부 추가했다.

그 결과 제주시권의 비지정 문화유산은 총 37종 935개소. 지역별로는 한경면 72, 한림읍 118, 애월읍 162, 추자면 7, 동 지역 295, 조천읍 120, 구좌읍 120, 우도면 41개소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각 자문위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역사성, 학술성, 보존 관리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시범적으로 A-E 단계별 등급을 매겼다. A등급(1개소)은 국가 문화(등록)유산 지정 가치가 있는 유산, B등급(30개소)은 도 문화(등록)유산 지정 가치가 있는 유산, C등급(245개소)은 도 향토유산 지정 가치가 있는 유산, D등급(386개소)은 지정 가부를 확정하기 어려우나 데이터베이스화나 기록 보존 가치가 있는 유산, E등급(273개소)은 훼손·미이용·멸실 등으로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거나 가치 판단이 불확한 유산으로 분류했다. 전체의 29.5%(276개소)는 문화유산 지정(등록) 가치(A~C등급)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다만 이번 보고서엔 이미 지정된 문화유산이 일부 포함되면서 용역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는 “목록화 대상이 930개가 넘는 등 방대한 분량을 다루다 보니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제주도는 제주시권에 이어 내년엔 서귀포시권 전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도 세계유산본부 측은 “올해 하반기 완료 예정인 ‘제주형 비지정 문화유산 분류 지표 체계 마련 용역’과 연계해 제주 전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면 전체 목록화, 등급화를 추진하고 활용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풍경/경계2-분단의 현실을 바라보며 제주4·3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기획한 전시,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이면서 문화 공간인 ‘작은미술관 보구곳’에서 기획하고 개최했던 두 개의 전시를 다시 구성해 소개하고 있다. 참여 작가는 안민욱·이다슬·이인지. 전시는 7월 5일까지 문화공간 양.

▷곳에 울고 곳에 웃다-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제주시무형유산전수교육관에서 ‘제주큰굿’과 ‘영감놀이’ 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 ‘제주큰굿’ 강좌에서는 제주탄생 신화와 제주큰굿의 특징을 알아보고 연몰악기와 굿노래를 익힌다. ‘영감놀이’ 강좌에서는 영감놀이의 구성과 의미를 배우고 영감탈을 직접 만든다. 운영 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문의 070-4647-1221.

▷시인보호구역 ‘문장산책’-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로 선정된 프로그램. 제주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품고 있는 화북포구 바닷가와 골목을 걸으며 떠오른 문장을 기록하고, 각자의 글

을 소리 내어 나누는 낭독 살롱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정은 7월 17일과 25일. 지원 사연을 보고 회당 8명을 선정해 무료로 진행한다. 참가자에겐 저녁 식사가 제공된다. 시인보호구역 공식 누리집 참고.

▷제주문학학교 찾아가는 문학교실=변종태 시인과 함께하는 시 창작 강좌 ‘시는 세상을 몇 층으로 보는가’가 8월 3일과 10일 안덕면 화순리 동백서가에서 운영된다. 세계를 다층적으로 읽고 표현하는 방법을 함께 탐색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신청 링크(<https://naver.me/GGGspA1Q>) 이용 선착순 접수.

▷제주시 ‘2026 청소년예술제’=7월 25일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리는 청소년예술제 본선 경연에 참가할 공연팀을 7월 6일까지 공모한다. 노래, 음악, 댄스, 무용 등 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도내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는 응모자들이 제출한 1분 내외의 공연 영상을 심사한 뒤 10팀을 선정해 본선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본선 최우수 수상팀은 ‘2026 한여름밤의 예술 공연’ 참여 기회도 갖는다. 제주시청 누리집 참고.



황학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129)

굼부리의 날들

김효선

마른꽃들이 지나갔다

절망이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때
송당리 아부오름으로 차를 몬다 거기,
나만큼 너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두 개의 심장이 적절한 공기에 둘러싸여

삼나무 아래를 지나는 꿈을 꾸다
있으리만 살던 시절을 내려놓고
다시 네 생일이라고 잔뜩 미역을 불리고

수위를 넘긴 바다가 창문을 엿볼 때
썰어서 뼈를 묻은 역새들
가시를 기다리다 지쳐 오름이 되었겠지만
(중략)

영원히 나를 껴안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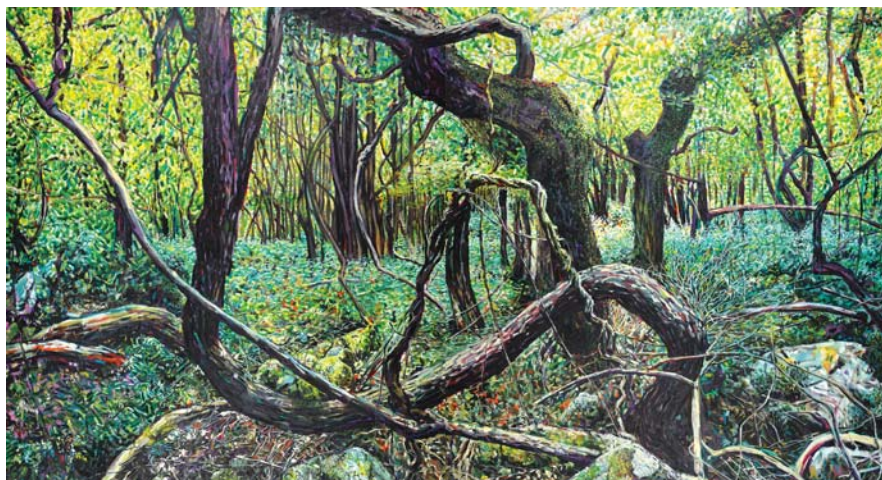
마른 꽃들이 흔들렸다 신발 뒤축으로



삽화=배수연

시는 제주 오름(굼부리)을 배경으로 상상과 그리움뿐 아니라 자신과의 불화를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밀고 간다. 특히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의 호응으로 화자의 걸음은 끝난 게 아니라 기억 속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오름은 절망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절망과 함께 도착하는 길 끝에 있다. 그리하여 오름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썰어서 뼈를 묻은” 존재, 혹은 말을 하지 않는 타자를 지시하고, 결국 시인은 제주의 지형을 내면의 지형으로 바꿔 놓으며, 제주를 통해 사랑 이후의 인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쩌면 “나만큼 너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문장이 이 시 전체의 중심일 것이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인>



홍일화의 ‘꽃자왈 0507’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 제공

꽃자왈 품은 대형 회화 서울 도심에

꽃자왈공유화재단 광화문서
7월 6~31일 홍일화 초대전

서울 도심에 꽃자왈의 숨결을 품은 대형 회화 작품이 걸린다.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이 오는 7월 6일부터 31일까지(주말 제외) 서울 광화문 라이나타워 1층 로비(서울 종로구 삼봉로 48)에서 펼치는 홍일화 초대전 ‘제주 생명의 숲, 꽃자왈의 숲’이다.

이 전시는 수도권 관객들에게 예

술 작품을 통해 제주 꽃자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처브그룹 라이나손해보험이 후원했다.

2019년 제주 레지던시를 계기로 공존과 연결의 메시지를 담아 꽃자왈 작업을 이어 온 홍일화 작가는 제주 숲의 사계절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낸다. 특히 너비 24m, 높이 2.2m에 이르는 13폭 크기 회화를 통해 전시 공간을 거대한 숲으로 바꿔 놓는다. 전시장에는 꽃자왈의 맑은 공기를 재현한 향기도 퍼질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전세기로 떠나는 편안한 해외여행

★★ 영업배상책임보험 10억 가입 ★★

2026년도 제주직항 전세기운행 일정

제주직항전세기

몽골(4박5일)
출발일: 7/10, 7/15, 8/5, 8/9, 8/13, 8/17, 9/23

패키지 1,590,000원

서여객선 몽골 노마드전통체험, 칭기스칸 마동상, 테를지 국립공원(거북바위, 아리아발 사원) 초원승마, 자이승전망대, 간단사원

제주직항전세기

일본돗토리-마츠에(2박3일)
출발일: 7/10

패키지 1,090,000원

서여객선 돗토리 사구, 돗토리 모래 미술관, 요리의 길(미조키 시계루 로드), 마츠에 조잔공원, 하나카이로, 유메미나토 타워, 다치무에코 현수교

제주직항전세기

백두산(연길/3박5일)
출발일: 7/20, 7/23, 7/26, 7/29, 8/1, 8/4, 8/7

패키지 1,290,000원

서여객선 백두산북파코스(장백폭포, 노천온천지대), 서파코스(금강대협곡), 일출봉, 윤동주생가

제주직항전세기

중국 장가계(3박5일)
출발일: 10/8, 10/11, 10/14, 10/17

패키지 1,290,000원

서여객선 보봉호수(유람선포함), 천문산사+귀곡전도+유리전도, 전신마사지, 황룡동굴, 천문호선소, 천자산 케이블카, 원가계 백룡엘리베이터, 72기루, 금편계곡

공통사항 · 여행상품 가격 포함내역 : 유류항종료, 공항이용료,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 불포함내역 : 부가세, 가이드 · 기사봉사료, 상금차지, 매니저, 선택관광경비, 기타개인비용 · 최소출발인원 10명기준 · 4성(준4성)이상 2인1실 · 기획여행보증보험 2억 가입, 여행자보험 2억가입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통의를 받습니다.

T. 064)746-690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90호 제주시 연북로 92 진한빌딩 1층

T. 064)742-7990
관광사업등록번호 제주-336 제주시 연북로 92 진한빌딩 1층

전세기 전문여행사 **여행정보서비스**

여행정보서비스 바로가기